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위해사례의 내용분석

신 광 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사 약력

1. 학력

1952. 4 ~ 1956. 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사)
1961. 3 ~ 1962. 2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1965. 6 ~ 1965. 12 : 일본 후생성 국립공중위생원 (위생기술 연구과정)
1975. 3 ~ 1980. 2 : 건국대학교 대학원 (농학박사)

2. 경력

1956. 9 ~ 1958. 8 : 육군 식품검사관 (육군중위)
1958. 9 ~ 1959. 6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조교
1959. 7 ~ 1962. 6 : 서울특별시 산업국 축산물검사관
1962. 7 ~ 1962. 12 : 국방부 병무국 보건체육과 (보건기좌)
1962. 12 ~ 1967. 1 : 국립의료원 영양과장
1967. 2 ~ 1972. 1 : 보건사회부 식품위생과장
1972. 2 ~ 1973. 6 : 국립보건원 식품기준연구 담당관
1973. 3 ~ 1982. 2 : 서울보건전문대학 교수
1980. 3 ~ 현 재 : 보건사회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1982. 3 ~ 현 재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현 재 : 한국 HACCP연구회 회장
한국 식품위생·안전성학회 명예 회장
한국 수의공중보건학회 고문
대한 수의사회 부회장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위해사례의 내용분석

신 광 순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

- I. 머리말
- II. 최근의 위해식품 언론보도내용 분석
- III. 식생활에 대한 불안요인과 그 해소방안
- IV. 언론보도의 특성과 중요성
- V. 식품관련 보도에 대한 제언

I. 머리말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소비자의 입장은 보다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서 “안전”이란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측면을 말하며 “안심”이란 정신적·주관적인 측면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안전하다는 것을 과학적·이론적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만, 안심할 수 있다는 판단은 소비자에 대하여 안전성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식생활에 있어서의 안전성 문제는 자연과학에 근거한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이 아무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된다 하더라도 과연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식품에 대한 안심감을 가질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즉 행정시책과 소비자의 수용방법 간에는 견해차이가 생길수 있는바, 아무리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결과적으로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 사이는 좁혀질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대중매체의 역할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소비자인 국민은 식품의 안전성이나 위해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소비자는 스스로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안은 커질수 밖에 없다. 더욱이 소비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지 못할 수록 그 불안은 증폭되며 반대로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성이 높으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 소비자도 정보를 받아드릴 지식과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더욱이 정보제공자는 그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정보매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언론매체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II. 최근의 위해식품 언론보도내용 분석

식품을 중심으로 최근 문제가 된 위해식품에 대한 언론보도중 특히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인 위해식품 사건의 발단 경위와 그 배경 그리고 그 처리결과와 소비자인 국민 및 관련 산업계에 미친 영향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름우유 및 항생물질 검출파동(1995년 10~11월)

- 1) 사건발생경위 : MBC(추적 60분) 방송보도와 유가공업계의 상호 비방광고가 도화선이 됨
- 2) 조치사항 : 농림부에서는 원유의 체세포수에 따른 가격 차등제 실시 및 원유검사 공영화 시책을 추진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우유류의 항균성물질 잔류기준설정 및 미생물 규격 강화 시행(1996. 9. 4)

○ 항생물질 잔류기준(2종)

페니실린 G : 0.004ppm 이하

OTC : 0.1 ppm 이하

○ 합성항균제 잔류기준(7종)

설파제 : 0.01ppm 이하

○ 미생물 규격 개정

대장균군 : 10 → 2 이하/ml

일반세균수 : 4만 → 2만 이하/ml

- 3) 관련업계에 미친 영향 : 유방염 치료제등 동물약품으로 사용되는 항생항균제의 남용과 잔류가능성을 놓고 유가공업계 간의 경쟁적 비방전이 전개됨으로서 전체 우유판매량의 소비감소 및 분유의 체화현상이 일어남
- 4) 소비자에 미친 영향 : 원유의 위생관리 문제가 바로 가열살균 처리한 시판 우유와 동일하게 인식됨으로서 매일 먹는 우유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시킴
- 5) 결과적 평가 : 일부 생산 목장의 원유관리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마치 전체 우유생산관리에 허점이 있는 듯한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 더욱이 원유와 시판우유(살균처리유)와를 혼동하게 함으로서 가장 우수한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하였음. 또한 일부업자의 자사제품 우수성을 선전하게 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한 결과가 됨. 그러나 정부의 원유 및 유제품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는등의 동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음.

(2) 중국음식점용 돈지제품 단속파동(1996년 1~2월)

- 1) 사건발생경위 : 불량돼지기름제조업소(신영유지, 동광농산, 서울산업등) 단속결과 비위생적 식육부산물(돈피, 내장등)과 혼입물(비닐, 면장갑등)을 원료로 사용하였음이 적발되어 당국의 행정조치(영업정지)사항과 함께 공식 발표함('96. 1. 29)
- 2) 조치사항 : 해당 제품의 위해성 검증을 위하여 수거 검사를

한 결과 1개업소(신영유지) 생산제품에서 이물질(PE)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 폐기등(당일생산단지 800통)행정조치함과
동시 기타 제품은 무해하다는 발표가 잇따름으로서 혼란이
야기됨

- 3) 관련업계에 미친 영향 : 해당 3사 제품 전량이 중국음식점에
공급되었다는 발표내용이 과대 보도되어 모든 중국음식점
에서 불량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됨으로서 짜장면등
대표적 음식의 판매감소는 물론 모든 업소의 급격한 판매
감소현상을 초래시킴
- 4) 소비자에 미친 영향 : 1차 발표는 원료성분의 부적합성 지적
결과이며, 2차 발표는 제품의 안전성(규격기준 적합성) 검증
결과인바, 불량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실험결과 안전하다는
발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
- 5) 결과적 평가 : 행정조치 및 공식발표의 신중성이 결여된 결과
로 일부업계의 잘못을 적발한 결과가 전체 업계에 피해를
주게한 결과를 초래시킨 정보제공행위의 성급함과 보도의
부정확성이 남긴 해프닝이라 할 수 있음.

(3) 산분해 간장의 유해성 발표 파문(1996년 2~3월)

- 1) 사건 발생 경위 : 경실련에서 시판중인 산분해 간장과 혼합간
장을 수거 KIST에서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로 확인된 DCP
와 불임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MCPD가 다량 검출되었다고
발표함(1996. 2. 27)
- 2) 조치사항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와 WHO의 자료등
을 근거로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아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발표함. 그러나, 독일등 일부국가의 업계 자율적
조치방법을 고려하여 자율규제기준을 설정 단계적으로 시
행토록 함.
- 3) 관련업계에 미친 영향 : 국내 전통식품인 간장의 위해성보도

에 대한 파장은 업계 자체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수입간장(일본)의 소비증가를 초래시킴

- 4) 소비자에 미친 영향 : 경실련 및 일부학자와 연계된 간장 유해성발표와 정부 및 전문가위원회의 견해(유해성 검증에 대한 불확실성)발표로 인한 유무해 논쟁은 소비자의 현혹감만 증폭시켜 물심 양면의 손실을 초래시킴
- 5) 결과적 평가 : 여사한 간장의 유무해 논쟁은 과학적·기술적인 검증에 대한 사항이지 결론적인 판단을 내릴수 없는 사안을 놓고 시시비비를 논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경실련의 검증되지 못한 발표나 언론의 경쟁적 보도 그리고 일부학자의 단편적인 견해만으로 사회적 파동을 일으킨 결과가 됨.

(4) 유아용 분유의 발암물질 검출파동(1996년 7~8월)

- 1) 사건발생경위 : 영국에서 분유의 DOP검출이 사회문제화되자 국내 언론에 보도됨.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에서는 이의 조사 연구를 위하여 유제품 검사실시중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이나 공식발표자료가 아닌 내용이 SBS뉴스(9. 12. 8시)에 단독 보도됨과 동시에 타 언론사의 경쟁적 보도가 계속됨. 안전본부에서는 보도내용이 1차 스크리닝 자료이며, 최종 검사결과는 DOP의 함유량으로 볼때 인체에 무해한 수준임을 공식 발표함 (9.14)
- 2) 조치사항 : 국내학자 및 WHO 전문가들의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인용하여 언론에 기고케하는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과 동시에 DOP는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발표(9.17)와 안전본부 명의의 유제품 안전성 광고 게재함. 또한 자료 유출경위등의 조사와 여사할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및 검사 결과 발표 체계를 정비함. 또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국의 이통장등에 서한 1만 여매 발송하여 의구심 해소를 위해 노력함.

- 3) 관련업계에 미친 영향 : 양축농민 약 4,000여명의 과천집회시위와 항의가 잇달을 정도로 물심양면의 피해를 일시적으로 주었으나, 당국의 신속대응으로 소비감소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님.
- 4) 소비자에 미친 영향 : 특종 보도를 위한 언론인 및 언론사들의 경쟁과 무분별한 보도결과가 일으킨 사건으로 유유아의 주식인 분유라는 점에서 특히 소비자의 관심을 고조시켰으나 결과적으로는 정신적, 물질적인 손실만 가져다 준 일과성 사건이 됨.

(5) 외국의 식품관련 보도파장(1996년 3~9월)

- 1) 사건발생경위 : 영국과 EU지역에서의 광우병(BSE)과 사람의 야콥병(V-CJD)과의 관련성 보도 및 일본, 미국등의 출혈성 대장균(O157 : H7)식중독 사건의 보도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 파장이 제기됨
- 2) 조치사항 :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발생예가 없으나, 사전예방적인 입장에서 각기 행정체계를 통한 조사와 원인식품인 식육류의 위생관리 철저를 위한 조치 및 대국민 홍보·교육을 실시함
- 3) 관련업계 및 소비자에 미친 영향 : 실제적 사실은 없으나 우려 가능성 때문에 언론의 보도에 예민한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 현상의 발생으로 축산물의 소비위축이 일어나 간접적인 피해를 줌
- 4) 결과적 평가 : 국제화에 대비한 사전 조치는 절대 필요하며, 새로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처 필요성을 일깨우는데 언론이 크게 역할을 한 사례라 볼수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의 기본방향은 일과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이며 사실적인 연구조사가 뒷받침되어야 그 진가를 나타낸다는 철학을 갖도록 동기를 만드는데 언론이 계속 기여하기 바람.

Ⅲ. 식생활에 대한 불안요인과 그 해소방안

(1) 소비자의 불안요인

전술한 바와 같이 식생활에 대한 불안요인은 불안을 받는 쪽의 관심도가 많을 수록, 그리고 제공된 정보가 애매할 수록 커지며, 반대로 받는 쪽의 지식과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성이 높으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식품위해성에 대한 불안요인과 그 배경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정당국, 영업자, 전문가에 의한 불안 요인

- 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행정당국에 의한 정보제공은 반드시 충분한 정도의 내용을 담지 못하는 경향이다. 또한 홍보 내용도 위해성의 정량적(위해성의 정도) 측면이 밝혀져 있지 않거나 과학적 증거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등 애매 모호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용이 불가능하다.
- ② 검역소가 행하는 수입식품의 검사나 일선 시·도등의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알려진다 하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 ③ 식품영업자나 민간 검사기관을 포함한 민간의 자율적 안전성 확보 노력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충분한 정보 제공 수단이 결여되어 있으면, 국민에게 알려질 수 없다.
- ④ 안정성에 관한 근거없는 논의가 일어날 경우 전문가측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반론이나 의견표명이 되고 있지 않다.
- ⑤ 중앙정부(보건복지부)나 지방정부(각 시·도) 또는 공공기관(소비자보호원등의 홍보체제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관한 정보제공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알려고 노력하더라도 자료를 얻

기 힘들다.

- ⑥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의문에 응답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검사나 연구수행 결과가 불충분하다.

2) 소비자에 의한 불안요인

- ① 식품의 안전성은 생명, 건강, 가족에 미치는 영향등 생존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은 높아질수 밖에 없으며, 일단 불안이 생기면 커지는 경향이 있다.
- ② 과학적으로는 동일한 물질인데도 자연물질 또는 천연물질에 대한 신뢰가 지나치게 강하다.
- ③ 가공식품등은 그 가공공정을 볼수 없기 때문에 그 만큼 소비자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특히 잔류농약이나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볼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 ④ 식품안전성에 관한 평가는 고도의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없으며, 더욱이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도 불충분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평가가 불가능하다.
- ⑤ 다양화된 가공식품에 익숙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다종 다양한 정보를 받아 드려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 ⑥ 식품의 규격·기준의 정비를 비롯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조치나 규제가 소비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2) 불안요인 해소방안

전술한 소비자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행정당국은 물론 전문가등 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식품관계 영업자가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국민의 정신적·심리적 불안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정당국의 역할

- ① 식품의 안전성등에 관한 정보제공은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소비자가 자료 제공(홍보교육자료등)을 받거나 자력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정보원(언론매체등)을 확보한다.
- ② 소비자의 식품에 관한 불안이나 의문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적절한 정보를 적절한 시점에 제공할 수 있는 상담창구의 개설등 체제를 갖춘다.
- ③ 식생활의 안전성 관리는 기존의 부처간의 소관업무를 벗어나 부처간의 횡적연계를 밀접히 하여 동시 병행적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행정담당자와 및 전문가의 역할

- ① 식품관리를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공직자는, 물론 전문가가 신뢰를 얻어야 한다. 소비자의 의문에 신속히 응답함은 물론 소비자가 느끼지 못하는 데까지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즉 행정이나 과학의 잣데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갖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 ②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도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이 갖는 속명적 한계의 설명도 포함하여 과부족함이 없이 밝힐 필요가 있다.
- ③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잘못된 정보나 오보가 생겼을 시에는 행정담당자나 전문가의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해성의 정도에 대하여도 구체적이며, 알기쉬운 정보제공이 요망된다.
- ④ 정보를 받는 쪽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

사회교육등을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정보를 위한 교육 계몽활동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

3) 식품영업자의 역할

- 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영업자나 그 단체를 통한 자율적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민간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 ② 표시방법이나 선전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게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의 필요성도 있다. (예 : 미농무성의 Safe Handling instructions) 또한 단순한 상업적 경쟁전략이나 과대한 광고 선전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소비자의 역할

- ① 소비자는 다종다양한 정보나 표시사항등을 근거로 스스로 판단하여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② 소비자 보호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만을 내세워 상대방을 무조건 비방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참다운 소비자 운동 방향임을 깨달아야 한다.

즉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되며 결과적으로 외제선호나 물심양면의 손실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IV. 언론보도의 특성과 중요성

미국의 저명한 신문학자인 Wilbur Schramm은 독자가 뉴스를 선택할 때 얻는 보상에 따라 뉴스를 연성뉴스(Soft news)와 경성뉴스(hard news)의 두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즉 연성뉴스는 범죄, 부정부패, 사건과 사고, 천재지변, 운동, 오락등 흥미기사를 말하며, 경성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문제와 관련된 뉴스나 과학, 교육, 건강, 세금, 외교등에 관한 뉴스를 말한다. 여기서 경성뉴스는 독자에게 즉시적 보상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근심이나 우려등의 위협적 가치(threat value)를 제공하지만 독자는 그러한 뉴스를 읽는 순간 어떤 지성적 현실의식을 제공받는다 고 한다.

연성뉴스는 독자들에게 즉각적인 쾌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경우 위협적인 현실로 부터 도피하여 꿈의 세계로 후회하게 하지만 경성뉴스는 독자들에게 쾌락 대신 고통과 위협을 주나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현실에 대비할 정보나 준비의식을 갖게끔 한다. 여기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뉴스는 후자인 경성뉴스를 분류할 수 있으며, 독자에 미치는 영향도 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저명한 신문학자인 Mitchell V. Charnley는 뉴스의 특성을 다음 몇가지로 보고 있다.

1) 정확성 (Accuracy)

한때 우리나라에 “정부의 말은 못 믿어도 신문의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신문보도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겠다. 즉 정확성은 뉴스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종사자는 각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균형성(Balance)

특히 뉴스란 시간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바쁜 과정속에서 과

오가 생기기 쉽다. 언론보도에 있어서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 어려운 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어떤 사건의 보도가 전체적으로 공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사실을 균형있게 전개하는 일도 쉽지 않다. 독자에게 어떤 뉴스가 공정하게 받아 들어지기 위해서는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식품의 유무해 논쟁이 있을 경우 한쪽의 의견만 중점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친다면 그 보도는 우선 공정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었다고 보겠다.

3) 객관성 (Objectivity)

뉴스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사실적 보도라 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이란 있는 그대로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감 없이 설명되고 기술함을 말한다. 즉 객관성이란 현대 신문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자들의 보도활동에는 객관성을 망각하기 쉬운 두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는 기자도 역시 인간이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편견, 선입감, 이해관계, 외부로 부터 압력등을 이겨나가기 힘든 경우가 생기게 된다.

둘째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뉴스보도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술만으로는 독자에게 충분한 이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인바, 그 해결 방법으로 대두된 것이 해설적 보도인 것이다. 특히 식품의 위해성 보도에는 전문적이며 과학적 검증을 거친 배경뉴스를 덧붙여 제공해야 한다.

4) 간단명료성(Concise and (Clear) 및 최근성 (Recency)

뉴스란 그 자체의 기술형식이 있는바 간단하고 명료하게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함을 말한다. 즉 논리가 통일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수식어를 철저히 배격함으로써 문장이 생기있고 박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것이 뉴스의 1차적 형식이다.

또한 뉴스는 최근성이란 시의성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언론보도에 분초를 다투게 되기 때문에 시의성이란 뉴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상대적 요건이 된다.

V. 식품관련 보도에 대한 제언

전술한 언론 보도의 특성은 극히 원론적인 개념을 논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추가하여 식품의 위해성등 과학적이며 전문성이 가미된 뉴스 보도의 경우에는 다음 몇가지 특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언론보도에 있어 어떤 위해물질에 대한 유무해 논쟁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흑백논리로 전개되어서는 안된다. 극히 일부의 견해나 주장 또는 전문학자의 단편적인 연구결과를 아무 회석장치 없이 그대로 뉴스화한다는 것은 보도 경쟁적인 관점에서 납득할 수 있으나 대다수 독자이며 국민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시키며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근래 일부 언론에서 수용하고 있는 전문기자제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등으로 문제의 해설과 교육계몽을 겸한 보도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즉 전문분야의 문제는 전문가의 검증과 의견이 존중되는 풍도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언론보도 내용의 정확성이 보장되어 결과적으로 과장된 뉴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일반사회의 사건 사고의 경우와 달라서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기사의 표현이나 기술방법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 한예로 WHO의 국제암 연구기간(IARC)의 발암물질 분류 평가자료에 등재되어 있는 표현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Group 2A(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B(Possibly carcinogenic to hamans)의 표현으로 Group 1(Carcinogenic to humans)과 구분하고 있는 사례를 들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들 평가 기준을 도외시하고 모두 발암물질로 동일시 취급하는데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모든 언론 보도는 공정성과 균형성 그리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진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사명일진대 국민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식품문제를 담보로 한 보도 경쟁은 바람직 하지 않다. 최근 일본에서 0-157집단중독으로 만여명의 환자가 발생한 일이 있다. 그럼에도 일본 언론이 문제를 신중하게 보도했던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즉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한 판단에 의한 보도로서 뉴스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문제의 제기와 여론화를 주도해야 하는 언론이 문제를 확대 증폭시키는데 그치고 대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면 독자의 판단만 흐리게 한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위해식품 현황 ('95 ~ '96)

● 가공식품류

구 분	보 도 내 용	보도시기	비 고
과자류	○유통기한 지난 초콜릿을 재가공하여 시판한 업체 적발	'95. 5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과자류(맛동산, 아몬드쿠키, 새우깡) 유태틀루엔 다량 검출, 유태판정시비)	'95. 9	국민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한국경제, 내외경제
	○과자류에 아황산염류 검출	'95. 10	한겨레
	○'분말과자'먹고 폐렴 걸렸던 3세 여아 사망	'96. 1	동아일보
	○수입과자 유통기한 조작	'96. 3	내외경제, 세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해태, 수입과자 유통기한 연장판매, 소송	'95. 5	세계일보, 중앙일보, 서울경제, 연합뉴스
아이스크림류	○(커피맛)빙과류서 카페인 과다 검출	'95. 7	중앙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연합뉴스, 동아일보
	○시판 빙과류서 일반세균 다량검출	'95. 7	연합뉴스, 경향신문, 세계일보
	○수입아이스크림 대장균 다량 검출	'95. 9	한국일보, 한겨레 문화일보
	○고급아이스크림 위생불결	'95. 9	연합뉴스
	○유명업체 빙과류 인공색소 무분별 사용	'95. 9	연합뉴스 K·T
	○미국산 아이스크림 부적합 판정	'95. 11	연합뉴스

구 분	보 도 내 용	보도시기	비 고
유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즈에 PCB 검출 ○분유통 표시위반 ○파스퇴르사 의약품 과장광고로 행정처분 ○「고름우유」 광고로 파스퇴르사에 광고시 정령, 유가공업체와의 시비공방전, 고름우유비방광고에 행정조치, 항생물질검출 논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 1 '95. 4 '95. 9 '95.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일보, 서울경제 한겨레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경제, 연합통신,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문화일보, 내외경제, 국민일보
유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양 - 매일유업 비방광고로 각각 2억원씩 벌금 ○시판우유서 항균물질, 항생물질 미량검출 (5개사) - 「동서」에 제조정지명령, 항균물질은 인체무해 판정 ○'고름우유광고' 파문 ○급식우유에서 소독약 검출 ○시판 분유중 DOP, DBP(발암물질) 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 3 '95.11.12 '96. 2. 3 7. '96. 5 '9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내외경제,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K·T, K·H, 연합통신 서울신문, 연합통신, 세계일보 세계일보 내외경제,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연합통신

구 분	보 도 내 용	보도시기	비 고
식육제품 크림류	○도가니탕용으로 공업용 쇠다리힘줄 밀수 판매	'95. 3	국민일보, 한국일보
	○아질산염 허용치 잘못 허가한 유해햄 23년간 시판	'95. 3	국민일보
	○햄버거서 대장균, 일반세균 다량 검출	'95. 6	경향신문, 중앙일보,
		'96. 7	한국경제, 연합뉴스, 문화일보
	○육류 가공일 조작 백화점 적발	'95. 9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흑염소 농축액 63억 사기	'96. 6	경향신문
	○소세지등 냉동·냉장식품 부실유통	'96. 7	중앙일보
어육제품 크림류	○어패류(민어·명태등), 생선통조림에 PCB 검출	'95. 1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
	○어묵-햄등 중량미달	'95. 3	세계일보
	○생선 가공일 조작 백화점 적발	'95. 9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어묵등 냉동·냉장식품에서 대장균 검출	'95. 7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연합뉴스, 한겨레
두 부 류	○ 도토리묵에 유해방부제 검출	'96. 7	중앙일보

구 분	보 도 내 용	보도시기	비 고
식용유지	○ 중국, 수단산 참깨로 참기름 제조판매 ○ 불량돈지 중국집 대량납품 3개 업체 적발	'95.10 '96. 1,2	연합통신, 한국일보, 내외경제, 매일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서울경제, 한겨레, 연합통신, 조선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내외경제,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면 류	○ 공업용원료 섞어 당면제조	'95. 4	경향신문
청량음료	○ 미국산 레몬즙수서 이산화황 기준치 초과검출 ○ 청량음료등 유통기한 허위광고 적발 ○ 불합격음료 판매 제조업소 적발 ○ 시판 식혜의 변질품 증가 ○ 숙취해소음료 과대광고 적발	'95. 1 '95. 4 '95. 9 '95. 9 '95.10	연합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국민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K·T 한국경제 연합통신 한겨레 연합통신

구 분	보 도 내 용	보도시기	비 고
특수영양 식품	○미국 유아식품회사(거버, 하인츠등) 제품서 잔류농약 검출	'95. 7	문화일보
	○발암농약검출 미유아식품 시중유통	'95.10	문화일보, 연합통신
	○파스퇴르 유통기한 지난 이유식 반품 거부	'96. 1	서울신문
건강보조 식품	○다이어트식품 과대광고 업체 적발	'95. 6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연합통신, 문화일보,
	○건강보조식품 성분 부적합 - 비오 효소는 대장균군 양성 판명	'95. 9	내외경제, K·T 연합통신
	○건강보조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95.10	
	○허위 검사합격증지 붙여 판매	'96. 5,8 '96. 1,3	한겨레, 연합통신, 서울경제
	○7개 업체 불량건강식품 제조	'96. 1	동아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국 경제
	○다이어트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업체 적발	'96. 5, 6	세계일보, 한국경제, 국민일보
	○건강식품 '축협직판' 위장, 흑염소등 24억 부 당이득	'96. 6	동아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연합통신 서울신문

구 분	보 도 내 용	보도시기	비 고
조미식품	○ 시판간장 'DCP', 'MCPD' 유해 시비	'96.2,3	서울신문, 세계일보, 연합통신, 국민일보, 한겨레, 내외경제, 경향신문, 중앙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 순창고추장 사용금지된 색소, 방부제 첨가	'96. 5	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
	○ 고춧가루 대장균, 췌가루 검출	'96. 6,8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 신문
	○ 된장, 고추장등 대장균 30배 초과, 발암물질 검출	'96. 6	국민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연합통신, 조선일보, 한국경제 내외경제,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연합통신
김치·절 임식품	○ 중국산 젓갈 부적합 판정	'95. 11	연합통신
주 류	○ '경품제공'광고 맥주 3사 시정명령	'96. 5	서울신문, 한국경제, 세계일보

구 분	보 도 내 용	보도시기	비 고
건포류	○건포류에 아황산염류 검출 ○건포도 유통기한 조작 ○유통기한 경과 건포류 백화점에 납품 적발	'95. 10 '96. 3 '96. 8	한겨레 국민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국민일보, 문화일보, 내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기타식품 류	○휴게소 김밥, 햄버거서 대장균 검출 ○라면스프용 수입 건조채소 맹독성농약 혼증 제 사용 ○라면스프에 메틸브로마이드 검출 ○냉동스프 부적합판정 ○백화점 '멸치볶음'등 밀반찬 각종 세균오염 ○수입냉동감자, 팝콘 유통기한 조작 ○접객업소 냉면육수 세균기준치 30% 초과 ○도시락 세균 기준치 25% 초과	'95. 6 '95. 9 '95. 10 '95. 11 '96. 2 '96. 3 '96. 4 '96. 4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K·H연 합통신, 문화일보, 내외경제, 중앙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한국일보, 연합뉴스 국민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경향신문 세계일보

◎ 자연농산물류

구 분	보 도 내 용	보도시기	비 고
수산물	○홍합에서 마비성 패독 검출	'95. 4	조선일보
	○어패류(소라, 멧게, 피조개등)에서 E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	'95. 5	서울경제
	○어패류(가자미회)생식으로 인한 비브리오 패혈증	'95. 6	서울경제, 한국경제, 연합통신,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어패류(생선회)로 인해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95. 9	동아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연합통신
	○어패류로 인한 콜레라 발생, 출어, 어패류, 수산물 반출금지	'95. 9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가짜 상어지느러미 대량유통	'95. 9	한국일보
	○소라, 꽃게, 굴뚜기 섭취후 콜레라 감염	'95. 9	연합통신
	○홍합 삶아먹고 2명사망, 3명 중태	'96. 5	연합통신, 경향신문, 서울신문, 문화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전남,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사망자 발생	'96. 6	서울신문, 매일경제, 연합통신
	○거제도산 조개에서 비브리오균 검출, 패혈증 환자 발생	'96. 7	문화일보, 내외경제
	○진해 횃집에서 패혈증균 검출	'96. 7	세계일보
○안산 새우생식 '비브리오'환자 발생	'96. 7	세계일보	
○수입 마른해삼에서 기준치 넘는 납 검출	'96. 7	중앙일보	
식육	○소 생골 먹고 탄저병 발생 및 사망	'95. 2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연합통신, 국민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탄저병과 쇠고기는 무관함	'95. 2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연합통신

구 분	보 도 내 용	보도시기	비 고
식육	○불량식품(녹인 냉동오리), 변질재료 사용 판매업소 적발	'95. 8	동아일보, 매일경제, 중앙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수입쇠고기 사기판매업소 적발	'95. 9	경향신문, 국민일보, 중앙일보
	○광우병 여파로 영국소 가공품 수입금지	'96. 3,4	국민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서울신문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96. 5	서울신문,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수입돼지고기에 국산 섞어 시판	'96. 5, 6	서울경제
	○수입소갈비 한우로 속여 시판	'96. 6	경향신문, 문화일보
	○병들고 죽은 소 대량 유통	'96. 6	한국일보
	○수입양 흑염소로 속여 시판	'96. 6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향신문, 한겨레, 국민일보, 문화일보, 내외경제,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국내 소간에서 병원성 대장균 '0-157'검출	'96. 8	동아일보
	채소류	○무말랭이서 아황산염 검출	'95. 4
○맹독농약(카벤다짐, 호마이등)함유 콩나물 제조업체 적발		'95. 8.10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국민일보, 문화일보, 내외경제,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미국산 콩나물콩에 발암농약(카벤다짐)검출, 폐기조치		'95. 10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국민일보
○채소류에 아황산염류 검출		'95. 10	한겨레
○유해타르색소 함유 해초무침 대량 유통		'96. 1	동아일보, 세계일보
○가락시장 상추 기준치 4배까지 농약검출		'96. 2	조선일보

구 분	보 도 내 용	보도시기	비 고
채소류	○연근 불법표백 유통 4억대	'96. 5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전주, 콩나물에서 암등 유발 농약성분 검출	'96. 7	경향신문
과일류	○미국산 오렌지서 국내 검사기준치 미설정 농약검출	'95. 5	국민일보
	○미국 수입농산물(밀, 사과, 오렌지등) 농약 대량 살포 논란	'95. 5, 6, 7	세계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조선일보,
	○과일류에 아황산염류 검출	'95.10	한겨레
곡류	○팝콘용 수입 옥수수서 대장균 검출 논란	'95.4.6	연합통신, 조선일보, 국민일보
	○수입밀서 농약검출	'95. 9	한겨레
	○유기농산물에서 농약검출	'95. 6	내외경제

◎ 기구·용기류

구 분	보 도 내 용	보도시기	비 고
기구·용기	○주석캔 통조림 인체 유해	'95. 5	한겨레
	○과자류의 포장지서 유해 톨루엔 다량 검출, 포장지 교체	'95. 9,10	국민일보, 서울신문
	○캔음료 중금속 검출 논란 -20° 이상때 납, 주석 검출	'95. 12	중앙일보, 세계일보

◎ 기 타

구 분	보 도 내 용	보도시기	비 고
기타	○제조일표시등 위반 식품업체 적발	'95. 4	한국일보, 매일경제
	○수학여행 고교생 집단식중독	'95. 4	세계일보
	○유통기한 임의연장, 불량원료 사용업체 적발	'95. 4	문화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
	○과대광고, 유통기한 임의연장 업체적발	'95. 4	경향신문
	○불량식품 제조 판매업체 고발	'95. 7	동아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유통기간 지난 식품 판매업소 적발	'95.7,8	문화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위생불량 식품제조업소 적발	'95. 8	세계일보
	○식품유통기한 위반적발	'95. 8	매일경제, 연합뉴스, 내외경제
	○위법 식품판매 백화점 적발	'95. 9	연합뉴스
	○보관불량 냉장, 냉동식품 판매, 제조업체 적발	'95. 9	내외경제
	○보호시설 청소년 집단식중독	'95. 9	동아일보, 세계일보
	○중국음식점서 썩은 상어찌꺼기, 젤라틴 이용 가짜 삭스핀으로 판매	'95. 9	조선일보
	○강원도 상가 음식점취후 콜레라 발생	'95. 9	연합뉴스
	○백화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위생불량, 유통기한 위반적발	'95.10	연합뉴스, 경향신문, 세계일보
	○의약품 오인광고 식품업체(남양유업)에행정 처분	'95.10	연합뉴스
	○호텔의 음식점 유통기한 위반적발	'95.11	연합뉴스
	○무허가, 품질검사없는 제품생산업체 498개 적발	'95.11	한국경제, 연합뉴스, 내외경제
	○32개 표시위반 식품적발, 행정처분	'95.11	연합뉴스
	○식품접객업 불법영업 449건 행정처분	'95.12	내외경제
	○슈퍼부정, 불량식품 113곳 적발	'95.12	중앙일보
	○관광호텔 11곳 영업정지→유통기한 위반식품 사용	'95.12	세계일보, 국민일보

구 분	보 도 내 용	보도시기	비 고
기타	○스키장 5곳 15개업소 영업정지→유통기한 위반	'95.12	문화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결혼식 피로연 30여명 식중독	'96. 5	동아일보
	○원산지표시 위반 백화점 폭리	'96. 5	한국일보
	○캠프참가 27명 유치원생 집단식중독	'96. 7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고속도로 휴게소 6곳, 부적격 식품판매 경고	'96. 7	내외경제, 한겨레, 연합통신
	○대형음식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판매	'96. 8	한겨레
	○대형백화점, 슈퍼,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판매	'96. 8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